

# 解冤相生の 實現에 대한 考察

朴龍哲\*

## 目次

- I. 들머리
- II. 陰陽合德·神人調化와 解冤相生과의 連繫性
  - 1. 解冤時 나타날 수 있는 冤의 여러 類型
    - 1) 解冤時 冤의 發散的 形態
    - 2) 解冤時 冤의 平行的 形態
    - 3) 解冤時 冤의 收斂的 形態
  - 2. 相生을 指向하는 解冤의 類型과 그 前提條件으로써의 陰陽合德·神人調化
- III. 解冤과 相生의 連結點(開關)이 주는 意味
- IV. 相生의 理致와 具現
  - 1. 自然科學에서 發見되는 相生 理致
    - 1) 물의 電氣分解에서 나타나는 水生於火, 火生於水의 理致
    - 2) 核融合에서 나타나는 水生於火의 理致
    - 3) 半導體에서 나타나는 純粹物과 不純物의 相生에 의한 造化
    - 4) 超傳導體의 無抵抗이 주는 意味
  - 2. 相生의 具現
    - 1) 相生의 天地 具現
    - 2) 相生 時代의 政治
    - 3) 相生 時代의 經濟
    - 4) 相生 時代의 身分 制度
    - 5) 相生 時代의 男女와 結婚
    - 6) 相生 時代의 倫理
    - 7) 相生 時代의 生活
    - 8) 相生 時代의 죽음
- V. 끝머리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 I. 들머리

근대(19세기)는 극단적인 이익과 사상의 대립이 뚜렷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속에서 기성 종교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기성 종교가 사람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상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원시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을 듣고 구천대원조화주신<sup>1)</sup>께서 인세에 강세하셔서 解冤相生의 理法으로 세상을 진멸지경에서 구하는 천지공사를 행하셨다.<sup>2)</sup>

大巡眞理에서 해원상생은 신과 인간이 다 함께 지향해야 하는 실천 윤리 덕목이며 행동 강령이다. 이러한 윤리 덕목인 해원상생이 주는 표면적인 인상은 기성 종교가 주장하는 실천 윤리의 德目(慈悲, 仁, 博愛)과 같이 평이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신과 인간 속에서 구현되는 해원상생의 이치를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 기성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심오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은 '해원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그 이치의 일부를 설명하였지만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원의 해원에서 나타나는 원의 轉移, 增幅, 즉 惡循環 현상을 줄여 나가는 논리를 상생에서만 찾다 보니, 해원 후 상생이 된다는 先·後의 전개 과정을 顛倒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3)</sup> 다시말하면 해원상생을 음양합덕, 신인조화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지

- 1) <大巡眞理會要覽>, p.8에, 역사적 대중교가이신 강증산 성사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세에 대강하사 上揭書, p.10에, 강증산 성사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들의 호소와 청원으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 오시다.
- 2) <전경> 교운 제1장 9절: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이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 3) 박용철, <해원상생에서 해원에 관한 연구>, (대진논총, 인문 사회과학편 제3집: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6), p.88에, 대순진리의 해원상생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크게 부여되려면 우주의 운행법이 반드시 상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大勢의 상극 바탕에 小勢의 상생이 작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상생이 사라지고 상극만 남을 것이고, 대세의 상생 바탕에 소세의 상극이 작용하면 궁극적으로 상극은 사라지고 상생만 남을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해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의 구조에서 부정적인 원의 해원은 원의 상충 현상이 매우 크다. 따라서 원의

않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하여 해원상생의 실현이 음양합덕·신인조화라는 종지와 어떤 連繫性을 갖고 구체화되는 지 설명하고, 또한 상생시대의 이치와 그 구현을 살펴봄으로써 상생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

## II. 陰陽合德·神人調化와 解冤相生과의 連繫性

### 1. 解冤時 나타날 수 있는 冤의 여러 類型

원을 성격 면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으로 나누어 짐을 볼 수 있다.<sup>4)</sup> 여기서 부정적 원은 차경석의 원<sup>5)</sup>과 같이 인간의 욕망<sup>6)</sup>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원은 상생 지향적으로 해원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악순환을 낳는다.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며, 복수지향적인 척과 같이 부정적 측면의 원을 해소시킬 때에는 세가지의 유형이 기본적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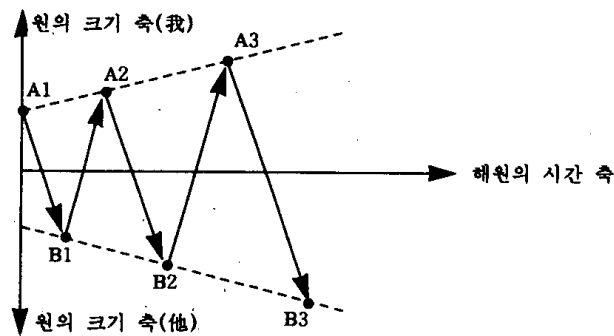
#### 1) 解冤時 冤의 發散的 形態

<그림1>은 부정적 원 A1을 해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 원 B1이 생성

상충 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우주 법리가 상생이어야 된다.

- 4) 박용철, <전경상에 나타난 원의 본질과 구조>,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전대학교 출판부, 1996), p.401에, 원의 다양한 구조는 본 논문에서 논하지 않고 단지 성격적인 면만 살펴보는데 그 범주는 긍·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원의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부정적인 면만 선입관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전경상에 나타나는 원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아 정리하고, 더불어 원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 정리하여 원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자 한다.
- 5) <전경> 공사 제2장 19절: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 6) <전경> 교법 제3장 24절: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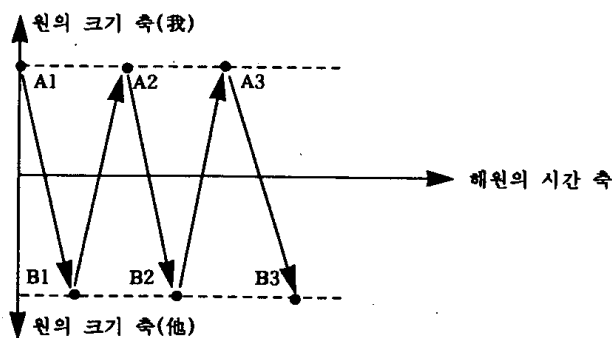
되고, 또 원 B1을 해원시키면 또 다시 원 A2가 생성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해원과 동반하여 생성된 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 A1 → B1 → A2 → B2 → A3 → B3로 전이 하는데 원의 크기가 점점 커져 가는 발산적 형태이다. 이 형태는 궁극적으로 원의 폭발로 인한 삼계의 진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 진멸 시간의 장단은 기울기가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형태는 상극의 우주 법리에서 필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1> 원이 발산하는 형태의 해원

## 2) 解冤時 冤의 平行的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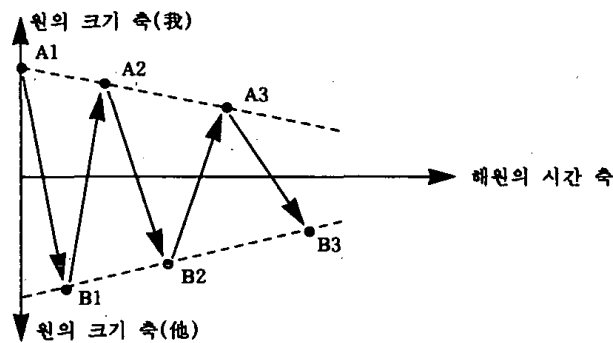
<그림2>는 해원을 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 A1 → B1 → A2 → B2 → A3 → B3로 전이 하는데 그 원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행적 형태를 가지는 원의 크기는 현실적인 우주 법리하에서는 실현됨이 어렵다고 본다. 원의 전이가 진행되는 형태는 우주의 기본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 발산 혹은 수렴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좁은 시간 영역에서의 평행적 형태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2> 원이 평행하는 형태의 해원

### 3) 解冤時 冤의 收斂的 形態

<그림3>은 해원을 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 A1 → B1 → A2 → B2 → A3 → B3로 전이 하는데 그 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해원상생에서 지향하는 형태이지만, 우주의 구조적인 조정없이 부정적 원이 자연스럽게 수렴적인 전이 현상을 갖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림3> 원이 수렴하는 형태의 해원

## 2. 相生을 指向하는 解冤의 類型과

### 그 前提 條件으로써의 陰陽合德 · 神人調化

역사이래로 해원의 패턴을 말하러 하면 단편적인 하나의 모델만 제시할 수는 없다. 즉 해원시 나타나는 형태는 기본적인 구조 3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세적인 면에서 보면 원이 발산하는 해원의 형태는 선천의 모델일 것이고, 원이 수렴하는 해원의 형태는 후천을 지향하는 해원 시대의 모델일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 상생 시대를 지향하려면 원이 수렴하는 해원의 형태가 되어야만 된다.

이마두의 원이나 진묵대사의 원과 같이 긍정적인 원은 상생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원시 부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원으로 부정적인 원을 상쇄시켜 나가는 해원의 방법도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상쇄적인 해원의 방법은 우주의 구조적인 법칙이 바꾸

어지지 않고는 조화롭게 되기 어렵다. 역사가 말하듯 긍정적인 원을 품은 성현 군자들이 선천 상극 세상의 우주 법리를 극복하지 못한 사실에서 이를 알수 있는 것이다.」 즉 증대하고 있는 원을 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것이다. 다시말하면 부정적인 원이 수렴적 형태로 해원이 될려면, 우주의 대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부정적 원이 해원될 때 나타나는 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논자는 우주의 상생지심을 해원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잘못된 논점이였다. 단지 본인은 해원상생이란 하나의 宗旨에서만 모든 문제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유추하였던 것이다. 즉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며 복수지향적인 척과 같이 욕구 발산을 근본으로 하는 부정적 원을 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원의 발산 현상을 역으로 수렴시키려면 시·공간상에 질서에 따라 원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원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렴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주재자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해원이 되어 상생이 되려면 주재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心·言·行이 일치하는 상제님의 心이 곧 理·氣이고 法이다. 다시말하면 상제님의 心이 道이고 理致이며 經緯고 法이다.<sup>7)</sup>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은 행동이고 이것은 곧 우주의 변화를 뜻한다.<sup>9)</sup> 칠십이둔 뿐만 아니라 음양둔<sup>10)</sup>까지 하시는 권능의 주재자이신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 대권을 주재하셔서 건곤을 조리, 통제하시는 體用一如의 理法

7) <전경> 교운 제1장 9절: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을 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전경> 권지 제2장 37절: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전경> 교운 제1장 40절: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8) <대순지침>, p.8에,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80.12.28>

9) <전경> 행록 제4장 14절: 「내가 한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터이니 나의 말을 믿을 지어다.…」

10) <전경> 행록 제3장 28절: 상제께서 을사(乙巳)년 봄 어느날 문공신에게 「강태공(姜太公)은七十二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을 펼치지 않으면 해원상생 시대를 열 수가 없다. 그러므로 自然 自體이신 상제님께서 인존의 理法으로 자연의 현실을 변환시키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이법의 실현 형태가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종지인 것이다.<sup>11)</sup> 이를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冤 역사의 첫 장인 단주의 원에서 비롯하여 항우의 원으로 이어져 근세까지 내려온 사천여 년 간의 포원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부정적인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sup>12)</sup> 원의 씨앗이며 크기가 가장 큰 원을 도주님께서 구천상제님이 定하신 해원의 이법에 따라 후천 오만년 선경을 건설하는 것으로 푸시니, 곧 사천여 년의 부정적인 원을 한민족 삭임의 恨<sup>13)</sup>으로 승화시켜 후천 오만년 선경 세상의 건설로 화하신 것이다. 이것은 두 분이 음양합덕하여 부정적인 원을 긍정적인 해원으로 승화시키고, 구미인의 발산적인 원에서 한민족의 삭임의 한으로 승화시키는 즉 상극에서 상생으로 음양돈을 행

11) <도전님 훈시 말씀(1991년2월12일)>: 우리 도는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구천상제님께서 천지를 임의대로 하셨다. 다른데는 상제님을 믿는다는데 진리가 없다. 진리가 뭐냐. 이치다. 이치가 경위인데, 다른데는 이론이 안 맞는다. 우리하고 믿는 것이 다르다. 다 같이 상제님을 믿는데 이치와 경위 그게 없다. 하느님이 행하신 일, 이러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 뿐이지 적극성이 없다. 믿는게 다르다. 우리는 적극성이 있다. 적극성이 없으면 안된다.

12) <전경> 공사 제3장 4절: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13)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p.51에, 「한국적 한은 그 상위 개념으로서 한(怨, 嘆)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초극의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속성(情, 願)을 이룩해 간다. 한국적 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찾게 된다. 이처럼 한국적 한이 공격적·퇴영적 속성으로 부터 출발하되 끊임없이 질적 변화를 지속하여 우호성·진취성으로 지향하게 되는 것은, 한국적 한이 그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한국적 한의 참된 독창성은 이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 가치 생성의 기능이란 '삭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李圭泰, <한국인의 의식 구조 2>, (신원문화사, 1993), p.201에, 「한국인의 '한'이 차지하는 의미 공간은 중국의 그것 보다는 훨씬 넓고 크다. 왜냐하면 한국을 다스려온 문화나 가치관은 외부 충격에서 주어진 긴장의 외향 처리를 不德시켰기에 처리 공간이 확장되고 따라서 넓을 수 밖에 없었다. 구미인은 어떤 충격에 대한 남득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이견이 있거나 할 때, 그 외부 충격에 대해 자신을 대립시키는 외향 처리를 잘한다. 그러기에 원한으로 남는다는 법이 별반 없다.

한 것이다. 즉 구천상제님께서 해원을 주재하셔서 구 년간 천지공사를 통하여 理를 體로써 定하시고,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보은을 주재하셔서 오십 년 공부로 구천상제님의 도수를 氣의 用으로써 받드시니, 이로써 체용일여의 음양이 합하여 후천 선경 건설로 造化하셨다. 이것이 곧 음양합덕의 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과 인간의 역할이 符合되고, 신과 인간의 器局 크기가 균형이 맞는, 즉 단주에서 비롯한 포원의 神과 인간 도주님께서 神人調하시어 후천 선경 건설로 化하셨다. 따라서 역사 이래로 단주의 원으로부터 비롯하여 생성된 많은 포원의 神들이 도주님의 神人調化를 本받아 후천 선경 건설에 동참하니 자연히 부정적 원의 크기는 수렴되는데, 이것이 신인조화의 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이치를 『전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양합덕은 도주님께서 국가적인 원한을 승화시켜 후천 상생 시대의 틀을 만드는데서 볼 수 있다.<sup>14)</sup> 즉 도주님께서 기유(1909)년 십오세기 만주에서 奉天命<sup>15)</sup> 할 때 누구보다 일본에 대한 원이 컸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그렇지만 일본에 대한 원을 구천상제님이 정한 해원의 이법에 따라 천하 창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승화시키셨다.<sup>17)</sup> 이것이 음양합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인조화는 양위 상제님께서 조선 땅에 降世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즉 한민족은 부정적인 원을 삭임의 한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원상생의 이법을 구현하기 위해 九天上帝·玉皇上帝라는 神格를 가진 분께

14) <전경> 공사 제2장 4절: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 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 자 하나 한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 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 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

15) <전경> 교운 제2장 4절: 도주께서 기유년(十五歲時) 四月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 땅인 만주에 가셨도다.

16) <전경> 교운 제2장 2절: 조부는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로 있다가 을사(1905)년 국운이 기울어 감에 통탄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분사하였도다.

<전경> 교운 제2장 5절: 도주는 경술(1910)년에 어린 몸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에서 일본 군병과 말다툼을 하셨으며...

17) <전경> 교운 제2장 5절: 고국만이 아니라 동양 천지가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구세 제민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입산 공부에 진력하셨도다.



서 조선 땅에 강세하셨어 神人 姜飴山<sup>18)</sup> · 道主 趙鼎山<sup>19)</sup>이라는 人格을 가지고 調化하셨다. 이러한 신인조화의 이법을 『呪文』의 眞法呪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0)</sup>

### Ⅲ. 解冤과 相生の 連結點(開闢)이 주는 意味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성격의 원을 해원시키면, 사회는 더욱 더 윤리 도덕이 부재하여 무질서가 난무하는 난법 사회가 된다. 그렇지만 만물이 재위치를 찾아 완전한 질서를 이루는 상생 사회는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바가 없는 진법 세상이다. 이 선·후천의 세상을 연결하는 과정, 즉 난법에서 진법으로, 상극에서 상생으로 가는 과정에는 큰 변화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된다.

이런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선천 상극 법리가 만들어 놓은 자연적 조건과 반상의 신분 제도, 남녀의 차등, 직업의 귀천등 무수한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衣·食·住·色 등의 욕구 분출을 막아 왔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원을 낳았고, 그 원은 척이 되어 세상을 진멸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러할 때 상제님께서 오셔서 문명신으로 하여금 자연으로부터 풍족한 물자를 생산 및 창조케 하여 물자의 부족에서 오는 전쟁과 투쟁을 사람들로 부터 많이 없애셨고, 그 결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과학 제일 주의 사고가 나타났다. 어쨌든 이것은 인간에게 기본 욕구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부정적인 원을 해소시켰고, 또한 새로운 원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의 독기를 자연이 가져감으로써 자

18) <전경> 행록 제1장 5절: 상제의 성은 강(姜)씨이요,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甄山)이시니라.

<전경> 행록 제2장 3절: 어느날 상제께서 전주부에 이르시니 부중 사람들이 상제를 신인으로 우러러 모시니라.

19) <전경> 교훈 제2장 1절: ...이 아기가 장차 상제의 공사를 뒤 이을 도주이시니 때는 을미년 십 이월 초나흘(十二月四日)이고 성은 조(趙)씨이요, 존휘는 철제(哲濟)이요, 자함은 정보(定普)이시고 존호는 정산(鼎山)이시며...

20) <呪文> 眞法呪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神格位 강성상제(姜聖上帝); 人格位 조성(趙聖); 人格位 옥황상제(玉皇上帝); 神格位

연은 죽어가지만 사람의 원은 풀려 간 것이다.

자연의 환경적 구속과 사회의 제도적 틀이 풀린다는 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맺은 원과 척으로부터 자연과 제도가 책임을免하겠다는 뜻도 된다. 즉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니 원과 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간 자신에게 맡겨 인간을 인존으로서, 즉 만물 중에서 어른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이고 인존이기 때문에 자연(천지신명)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선·악에 대한 천지 대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며, 개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원과 척을 완전히 해소하여, 긍정적인 원이 해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완전한 상생이 구현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 IV. 相生의 理致와 具現

상생이란 주역에 있는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相이란 홀로나 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이며 複數的인 개념, 즉 하나가 정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對象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解冤相生에서 말하는 相이란 주역에서 말하는 상극의 對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물, 만사를 가리킨다. 음양 자체가 相의 관계를 뜻하는데, 음을 정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 혹은 對對하는 양이 정해지고, 양을 정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 혹은

21) <전경> 교법 제3장 24절: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개불에 불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 가기가 어려우리라.」

<전경> 30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배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이다.」 라고 말 씀하셨도다.

대대하는 음이 정해진다. 이렇게 대대하는 음양 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멸하여야만 다른 한쪽이 산다는 이치가 상극이며, 어느 한쪽을 죽이면 다른 한쪽도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쪽이 살려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살려야 된다는 경위가 상생이다.

해원상생에서 상생이란 모든 만물 만사가 상생이란 말이며, 특히 선천 주역 세상에서 상극 원리가 근본으로 작용하는 天대 地, 神대 人, 心대 身, 水대 火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신분 등 모든 대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생이란 뜻이다.

『전경』에는

天用雨露之薄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 행록 제3장 44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 교운 제1장 66절

라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제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상생 시대에서 상생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본질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상극이면 상극에 의한 척 및 부정적인 원이 생성될 것이고, 마음이 상생이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생동적인 기쁨의 산물이 만들어 질 것이다.

여기서 도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생에서 오는 절대 행복을 알기 때문에 相生之心을 키워 가지만, 비교 우위에서 오는 상대적인 행복 즉 상극의 논리인 힘의 우위에서 오는 행복에 취해 있는 창생들은 환경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상생시대를 열려면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며, 復讐 지향적인 척과 욕구 발산적인 부정적 원이 해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척과 부정적인 원이 생성될 환경적인 구조가 없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부정적인 원을 갖는 기본 동기는 衣·食·住·色 등에 있는데,<sup>22)</sup> 이런 기본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차등을 없애면 척을 많이 해소 할 수 있다. 이런 천지 구조를 짜는 것이

22) <전경> 교법 제3장 47절: … 人生世間何滋味 曰衣 曰食 衣食然後 曰色也 …

천지공사를 주관하는 상제님의 일이시다.<sup>23)</sup>

상제님께서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문명신과 도통신을 거느리시고 각 민족에게 문화와 문명을 열어주셔서 척과 부정적인 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주의 구조적인 조정을 하셨다.<sup>24)</sup> 이러한 조정의 결과를 앞 단락 해원과 상생의 연결점이 주는 의미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또한 이 조정은 인류에게 상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상생 시대를 지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등 문명이기의 발전은 인류의 귀와 눈을 밝게 하였고, 그 눈·귀의 밝음은 상하 신분제도의 붕괴를 가져옴과 동시에 평등 세상을 지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가·민족의 개념을 희박하게 하여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무너지게 하고, 세계가 한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8월 9일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사용한 원자폭탄은 인류의 종말을 암시하였고, 국위 신장을 위한 각 국가간의 원폭 실험은 회복 불가능의 환경오염을 낳았으며,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반경 30km 이내를 순간적으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sup>25)</sup> 이와 같이 원자폭탄 등, 핵 분열을 이용한 모든 것은 상극의 극한 상황을 보여 주었고, 또한 이것을 사용한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 매스컴으로 세상에 전달되니, 싫어도 화합 상생하여야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인류에게 부각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세계는 국가, 민족이

23) <전경> 공사 제1장 3절: ...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

24) <전경> 권지 제2장 37절: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도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느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전경> 예시 12절: 상제님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

25) 오진곤, <과학사총설>, (전과과학사,1996), pp.430-444

란 대결 구도에서 자연과 인간이란 새로운 대결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런 대결 양상에서 자연의 죽음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문명과 지식은 자연과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케 하여,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相生之心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관을 말미 없는 자연으로부터 교육 받을 뿐 만 아니라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천의 원이 풀리면 西神이 司命하여 만유를 제재하여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데 이것이 개혁이다.<sup>26)</sup> 개혁후 후천 시대는 완전한 상생의 이치가 우주 전반에 펼쳐지는데, 이러한 상생 이치가 부분적으로 구현되는 과학적 발견의 예를 오늘날의 첨단 문명에서 살펴보고, 후천 선경 세계에서 펼쳐지는 상생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전경』을 통해 구성해 보면 상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1. 自然科學에서 發見되는 相生 理致

상제님께서 “나는 칠십 이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이화(三離火) 나라<sup>27)</sup>” 고 하셨습니다. 삼이화는 河圖 八卦<sup>28)</sup>에서 비롯되며 팔괘는 繫辭上傳<sup>29)</sup>에 나온다. 여기서 삼이화는 數理가 三이요, 方位는 離方이요, 자연의 성질은 火임을 뜻한다. 결국 전기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할 뿐 만 아니라 만물의 변화 및 조화를 담당하시는 雷聲普化天尊上帝께서 불의 성질과 형태를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삼이화로써 화둔을 트는 것이다.<sup>30)</sup> 이에 대해서는 상생 시대의 생활이란 단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 볼 것이다.

상제님의 화둔에 의해 열린 오늘날의 문명은 후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26) <전경> 예시 30절

27) <전경> 예시 20절

28) 金成浩, 朴琪聖, <陰陽五行通變寶鑑>, (南山堂, 1993), p.56에, 一乾天, 二兌澤, 三離火, 四震雷, 五巽風, 六坎水, 七艮山, 八坤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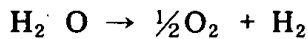
29) 盧台俊 譯, <新譯 周易>, (홍신문화사, 1995), p.222에,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30) <전경> 교운 제2장 55절

매우 많다. 다시 말하면 현대 최첨단 문명의 발전이 계속 유지된다면 미래 문명 사회는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일도 하지 않으며, 늙지도 않고 살 수 있음<sup>31)</sup>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후천 문명을 예견 할 수 있는, 즉 『전경』 제생 43절에 나오는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の 상생 理致를 자연과학적 발견에서 몇가지 찾아 보고자 한다.

### 1) 물의 電氣分解에서 나타나는 水生於火, 火生於水の 理致

물의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은 화학식에서 보드시 수소(H) 원자 두 개와 산소(O) 원자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순수한 물이나 바닷물에 분해전위(decomposition potential) 이상의 전위차를 가하면 양의 전극(환원전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생성되고, 음의 전극(산화전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생성 된다.<sup>32)</sup> 이렇게 생성된 두 기체를 태우면 물이 생성된다. 여기서 전기의 힘에 의해 물에서 만들어진 두 기체는 즉시 불로 化해지므로 火生於水이고, 두 기체가 타면서 물이 생성되므로 水生於火이다. 이런 가역 반응에서는 공해가 전혀 없다. 이 반응에서 상제님께서 주관하는 전기가 변환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31)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1998, 등록번호 다 285호), pp.68-70에, 인간의 생로병사는 '존재의 조건이다'. 과학 발달이 수명을 조금씩 연장해왔지만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의 영역에서만 있어 왔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그 '금단의 문'을 노크하기 시작했다. 세포 노화를 정지시키는 기법이 발견된 것이다. 종합적 인체 대사구조를 고려한 가운데 세포 노화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이걸 '영생(永生)'이다. 이런 영생의 가능성을 미국 텍사스대학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달러스)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세계적 과학 저널 '사이언스' 1998년 1월 14일자에 '세포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피해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열쇠인 「텔로메라제」라는 효소를 발견하였다'는 깜짝 놀랄 논문을 발표하였다.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7.4), pp.38-47에, 영국 과학자들이 양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1996년 7월의 일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영생 즉 '복제인간'을 말하고 있다.

32) 박영동 역, <현대일반화학 제2판>, (자유아카데미, 1995), p.413

## 2) 核融合에서 나타나는 火生於水의 理致

핵융합은 일억도 이상의 고온에서 수소(H)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He)을 생성하면서 나오는 에너지이다. 핵 융합의 원료는 정상 수소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이용하는데,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深海 밑바닥에 있는 무한량의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구할 수 있다. 이 핵융합은 핵분열과 같이 방사선의 발생도 없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없다<sup>33)</sup>. 이것은 바닷물의 重水로 부터 엄청난 불을 만들어 내니 火生於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전기가 에너지 변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半導體에서 나타나는 純粹物과 不純粹物의 相生에 의한 造化

라이프니츠의 2진법 발견은 동양의 태극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1701년에 강희제의 측근이었던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부베(Bouvet, 白晉)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우연히 두 장의 태극도를 입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태극도에서 64괘의 배열이 바로 0에서 63에 이르는 2진법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sup>34)</sup> 이 2진법의 음양 변화가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기초는 2진법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에 있다.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도체도 되고 부도체도 되는 것을 말하며, 이 반도체의 기본 제조법은 주기율표 제4족에 해당하는 실리콘(silicon: Si)이나 게르마늄(germanium: Ge)을 티끌 하나 없는 純粹한 眞性 물질로 만든 후, 그 진성 물질에 불순물 磷(P)이나 붕소(B)를 첨가하여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반도체는 集積化(IC: integrated circuit)되어 무궁한 변화와 창조력을 가진다.<sup>35)</sup> 즉 상극적으로 보여지는 순물질과 불순물의 상생적 결합을 통하여 수리상의 음양인 2진법만 가지고도 四象生八卦, 八卦生 萬가지의 변화와 창조가 구현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상생 이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변화와 창조의 주된 역할은 전기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박영동 역, <현대일반화학 제2판>, (자유아카데미, 1995), pp. 503-505

34)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4), p.61

35) 李最漢 譯, <古體電子工學>, (塔出版社, 1982)

#### 4) 超傳導體의 無抵抗이 주는 意味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부에 자기장이 존재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초전도물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분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또 한번의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전도 현상은 극저온에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초전도 현상의 최상 온도는 90K(섭씨 영하 183도)이다.<sup>36)</sup>

열이 존재하면 분자의 불규칙적인 운동이 있고<sup>37)</sup>, 이 불규칙적인 운동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데<sup>38)</sup>, 전자의 흐름이 방해당하면 당연히 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항이 있다. 이런 저항이 존재하는 것은 선천 상극 논리에서 당연한 사실이지만, 초전도 현상이 주는 의미는 그런 상극적인 이치가 부정되는 무저항의 상생 이치가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相生의 具現

### 1) 相生의 天地 具現

후천이 열리는 개벽 상황을 ‘玉樞統’에서 말하기를 風雨가 크게 일어나고, 해와 달의 빛이 보이지 않아 암흑 천지가 되고, 霹靂聲이 온 천지를 震動시키며, 山水가 붕괴되며, 하늘도 땅도 급박하게 돌아 晝夜가 분명치 않다고 한다. 이때 海印造化가 無窮無極하게 일어나 산도 평지로 만들고 바다는 물러나게 하며 들을 이동시키고 언덕을 무너뜨리는 즉 땅 위에 있는 모든 형태를 뜯어 고친다고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殺氣는 消滅하고 惡物은 저절로 죽는다고 한다. 이런 후에 북두주, 서두주, 남두주, 동두주, 중두주가 회전하여 동악주, 서악주, 남악주, 북악주의 자리를 고쳐서 다시 세우고 동

36)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7), pp.134-139

37) 오쓰카 다이이치로 지음, 김병호 옮김, <초전도란 무엇인가>, (電波科學社, 1993), pp.16-23에, 질서와 무질서 및 절대영도: 섭씨 영하 273도에서 분자의 난잡한 운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 질서 상태가 된다. 여기서 영하의 온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며 이 온도를 절대온도 0K라 하며, 영하 273도 이상이면 분자의 불규칙적인 운동은 항상 존재한다.

38) 오쓰카 다이이치로 지음, 김병호 옮김, <초전도란 무엇인가>, (電波科學社, 1993), pp.33-41에, ‘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해문, 서해문, 남해문, 북해문이 열려 금원기, 수원기, 목원기, 화원기, 토원기의 오행 元氣가 그 원기를 고쳐서 오행 원기를 정한다. 이후 억조 창생 수하 생활과 천지인이 대관결을 받아 큰일부터 정한 자리를 정하면 오행의 기운이 順하여 평정되고, 그에 따라 군생 만물이 정해진 자리에 자리를 정하면 천지가 다시 회복되어 자리를 정하고 일월은 다시 밝아지며 청명 세상이 열린다고 하였다.<sup>39)</sup> 이것은 선천 주역의 洛書 원리에서 후천 정역의 정음·정양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眞法呪’의 신명, ‘二十八宿呪’의 신명, ‘二十四節呪’의 신명<sup>40)</sup>, ‘開關呪<sup>41)</sup>’의 신명들은 ‘運合呪<sup>42)</sup>’에 나오는 삼라만상의 理致와 運氣를 취하여 ‘玉樞統’의 과정에 의한 개혁을 하여, 정음 정양의 원리에 맞게 천지를 뜯어 고치고, 음양의 기울어짐이 없게 하고, 음력과 양력을 일치시키며, 일·월의 巡行을 바로 잡아, 일년이 360일 되게 할 것이다.<sup>43)</sup> 이것은 시·공간의 360일·360도가 일치하여, 5일·5도를 한 候로 하는 72둔 조화가 쉬워지므로, 그 변화가 無窮無盡할 것이다. 따라서 水·火·風의 三災가 없는 상서가 무르 녹는 仙境淸華世上이 펼쳐진다.<sup>44)</sup>

## 2) 相生 時代의 政治

상생 시대의 정치는 선·불·유의 도통신, 문명신, 개혁주의 신장<sup>45)</sup>을 관

39) <전경> 교운 제2장 42절: 玉樞統 (天門地戶玉樞大判上帝出座萬神舉令左右劍戟前後旗幟風雨大作日月晦冥霹靂聲震山水崩潰天轉地轉陰陽變化海印造化無窮無極無山退海移野崩陵殺氣消滅惡物自死神急人忙不分晝夜北斗樞西斗樞南斗樞東斗樞中斗樞轉環東岳柱西岳柱南岳柱北岳柱改立東海門西海門南海門北海門開關金元氣水元氣木元氣火元氣土元氣改定急如雷火疾如直矢億兆蒼生手下生活天地人大判決大事定位陰陽五行順平定位萬物群生各各定位天地復定 日月更明山通水遠淸明世界和順世界萬理新制建哲極于中五廣濟化四極大定永定五萬年淸化之世唵급급如律令)

40) <呪文>

41) <전경> 교운 제2장 42절

42) <전경> 교운 제2장 42절

43) <전경> 행록 제4장 38절: 상제께서 어느날 공신에게 「대천일해(大天一海) 무근목(無根木)이 떠있고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 삼백 육십 잎이 피었으니 일월(日月)이 회도다. 九·十月 세단풍(細丹楓) 바람잡아 탄금(彈琴)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귀촉도 불여귀(歸蜀道不如歸)를 일삼드라.」는 시조 한수를 외워주셨도다.

44) <전경> 예시 81절

45) <전경> 교운 제2장 42절: 開關呪 (天上玉京天尊神將天上玉京太乙神將玉京玉樞守門將軍 … 四十八大將軍四萬神將八萬四千諸大神將)

장하는 상제님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여 군사위 일체<sup>46)</sup>로써 다스리는 세상이다. 신성이 입극하여 성·웅<sup>47)</sup>을 겸비한 일만 이천명의 도통군자<sup>48)</sup>들이 宇宙造化政府를 건설하여 천하를 한 집안<sup>49)</sup>과 같이 오만년을 다스리며, 조화정부의 정치 서열은 선천 상극 세상에서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결정되며 그 순서는 7일만에 성도하여 만사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통군자, 14일만에 성도하여 용사에 제한이 있는 중통군자, 21일만에 성도하여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하지 못하는 하통군자 순으로 정하여진다.<sup>50)</sup> 이 정치 조직은 후천 상생 시대의 정치의 체가 되어 오만년이 간다.<sup>51)</sup>

상제님의 마음은 상생의 이법 자체이며, 상제님의 마음을 닦은 도통군자들의 무욕청정한 마음은 오만년 동안 요·순의 도<sup>52)</sup>와 같이 창생을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다스린다.<sup>53)</sup>

삼계 대권을 가지고 있는 도통군자들은 생성, 소멸, 창조, 변화, 성숙 등 모든 부분이 임의로 용사가 되는 化權이 열리므로 오만년동안 창생을 지배 및 착취하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베품의 경우만 있다. 따라서 화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후천 정치인들은 창생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sup>54)</sup>

46) <전경> 교법 제3장 26절: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

47) <전경> 교법 제3장 26절

48) <전경> 예시 45절: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웅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

49) <전경> 예시 81절: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

50) <전경> 교운 제1장 34절: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전경> 교운 제1장 41절: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

51) <전경> 교운 제2장 11절: 도주께서 「개벽 후 후천(後天) 五만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아니 좋을시구」

52) <전경> 교운 제1장 46절: …상제로부터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53) <전경> 예시 81절

54) <전경> 공사 제1장 31절: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 도인의 집집마다

권력에는 절대적 선·악이 있을 수가 없다. 선천의 권력은 탐욕의 대상이 되어 정치인들이 악용하였기 때문에 나쁘게 인식되었지만 후천의 권력은 화권으로 무한한 창조, 생성, 변화의 元力이 된다. 따라서 권력의 惡用이 없고 善用만 있는 후천은 官과 民 사이에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의 관에 대한 존경, 관의 백성에 대한 사랑만 있을 것이다.

### 3) 相生 時代의 經濟

지혜가 밝아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한<sup>55)</sup> 천하 창생들은 마음을 속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통군자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심정과 조화로 마음을 속일 이유도 없다. 따라서 마음을 속임에서 비롯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화권에 의한 생산력 때문에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니 백성들은 탐욕과 시기가 없어지므로 돈의 흐름은 막히는 데가 없다. 물론 선천에서 상극이 낳은 모든 직업은 없어지고 완전한 신용 사회에서 도통군자들의 조화를 돕는 직업은 무한히 창출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신용 카드로써 돈을 정보의 흐름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후천을 상징하며 후천은 완전한 신용사회이므로 화폐는 없어지고, 단지 돈의 정보만 막힘이 없이 자동으로 흐를 것이다.

선천 인간은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노동과 오락이 분리되고 생산과 소모가 분리되고 고통과 행복이 분리되고 일과 쉬이 분리되었는데, 후천 창생들은 神人이 調化하여 心身이 상생하니 노동과 오락이 일체가 되어 일과 쉬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고통이 없는 행복한 경제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 4) 相生 時代의 身分 制度

후천 상생 시대의 계급은 뚜렷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 데<sup>56)</sup>, 서신이 사명

---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

55) <전경> 예시 81절

56) <전경> 교법 제2장 58절: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하여 만유를 제재할 때 급살병의 죽음에서 재생되는 창생들과 그들을 구제하는 도통군자들로 구분된다.<sup>57)</sup> 후천 신분 제도의 기본 원칙은 선천에서 각자가 닦은 공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신분의 높낮이는 신명이 결정하여 자리를 정한다.<sup>58)</sup> 이런 두 계급의 서열은 엄격하지만 서열에서 오는 어려움은 전혀 없다. 단지 이런 서열은 후천 상생 시대에서 조화력의 극대화에 필요한 질서를 잡기 위한 신분 제도이지 선천의 반상 신분 제도처럼 착취의 수단은 아니다.

### 5) 相生 時代의 男女와 結婚

후천 상생 시대는 선천의 상극에서 있었던 남성의 힘이 지배하는 남존여비는 무너지고 완전히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다. 남녀의 차등은性に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에서 닦은 공덕에 따라 결정되며<sup>59)</sup>, 단지 정음 정양의 도수로써 역할적 분담이 상생 조화하는 관계이다.

후천 상생 시대의 결혼은 정음 정양의 질서를 가진 조화 세상이므로 일음 일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부 일처이다.<sup>60)</sup> 후천은 복록 수명 시대이기 때

57) <전경> 예시 43절: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짚신 세 켤레를 닦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

<전경> 공사 제1장 36절: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

58) <전경> 교법 제3장 44절: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

59) <전경> 교법 제1장 68절: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전경> 예시 45절: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60) <전경> 공사 제2장 16절: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런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런을 끝내고 각기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 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 ...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들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는냐」 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고 하시고 공사를 잘

문에 복록이 떨어지면 靈肉이 일체로써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다. 따라서 복록이 다른 남녀가 일음 일양의 원리에 의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쪽의 수명이 다하면 완전한 無로 없어진다. 혼자 남은 남녀의 후천의 재혼은 그 나이에 맞추어서 나이가 적은 과부는 나이가 작은 홀아비, 나이가 많은 과부는 나이가 많은 홀아비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sup>61)</sup>

## 6) 相生 時代의 倫理

선천은 음양이 난잡하여 군·사·부와 충·효·열이 무너져 올바른 윤리 도덕 사회를 이루지 못하였다.<sup>62)</sup> 단지 성인께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쳤지만, 그 실천 행위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후천은 천지의 질서가 바로 잡혀 신인이 합덕하니 자연히 인간은 心身이 합덕 상생하여 言行이 一致하며 道理를 행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sup>63)</sup> 仁禮義智는 神人之道이며 常道이다.<sup>64)</sup> 이런 상도를 행하는 신명과 儒·佛·仙 도통 신명이 인간과 感通하여 調化하니 지혜가 밝아져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므로 자연히 상제님을 中心體로 大仁, 大義의 도리를 깨달아 행함에 무리가 없다. 그 행함의 기본 원칙은 守則 二에 나오는 삼강

---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

61) <전경> 공사 제1장 17절: 중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의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요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서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정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 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62) <전경> 행록 제5장 38절:…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63) <전경> 제생 43절: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不測變化之術 都在於神明 感通神明然後 事其事則謂之大仁大義也…

64) <전경> 교운 제2장 42절: 運合呢(元亨利貞天地之道 仁禮義智神人之道…)

오륜에 있다.<sup>65)</sup> 삼강오륜<sup>66)</sup>에는 師弟之間의 윤리가 없는데, 師爲弟綱과 師弟有禮를 합하여 보면 君·師·父·夫는 臣·弟·子·婦의 버리가 되어 도리에 어긋남이 없고 臣·子·婦는 忠·孝·烈의 도리를 행함에 힘이 전혀 들지 않으니 상하 좌우 안팎의 경우가 자연스러워 和平한 세상이 된다.

## 7) 相生 時代의 生活

17세기는 이마두(1552-1610)와 진묵대사(1562-1633)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을 거느리고 천상의 문명 세계를 지상 세계로 내리는 시작 시기였다.<sup>67)</sup> 이는 17세기가 서양 과학사에서 천재의 세기라고 불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은 노동력을 인간이나 동물에서 구하였던 것을 18세기부터 자연의 물리력, 즉 증기 기관에서 구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으며, 이것은 생활에 대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을 산업 혁명이라고 하고, 이 산업 혁명은 인간 세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는 상제님께서 삼계를 대순(대략 18세기 중엽부터 1830)하시다가 금산사 미륵금불에 임어한 때(1830)인 데<sup>68)</sup>, 이 기간에 전기

65) <大巡眞理會要覽> p.21에, 守則 二. 三綱五倫은 陰陽合德 萬有造化 次第道德의 根源이라,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하며, 夫婦和睦하여 平和로운 家庭을 이룰것이며, 尊丈을 敬禮로써 섬기고, 手下를 愛恤指導하고, 親友間에 信義로써 할것.

66) 三綱: 父爲子綱, 君爲臣綱, 夫爲婦綱

五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長幼有序, 朋友有信, 夫婦有別

67) <전경> 교운 제1장 9절: 「...이마두(利瑪竇)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전경> 권지 제2장 37절: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 하였나니라. ...」

68) <전경> 교운 제1장 9절: ...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1860)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1864)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sup>69)</sup>이 있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인의 생활 모습에 또 한번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이후 사실상 전기는 인류 생활의 생명이 되고 있는데, 전기를 상제님께서 주관<sup>70)</sup>하시는 것으로 『전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상제님의 대순과 전기 에너지에 대한 발견간의 시대적인 일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생활에 해원의 문명이 될 수 있는 지금의 현대 과학 기술은 자연의 물리, 화학, 생물 등에서 규명한 100여 가지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 과학은 靈力 즉 神力 혹은 氣力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일부 믿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직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응용도 미비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영력에 의한 정신 문명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견 할 수 있다.<sup>71)</sup>

그러므로 물질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켜 공해가 없는<sup>72)</sup> 후천 상생 시대는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69) 헨리 마케나우, 데이비드 버가미니 원저, 라이프/인간과 과학 시리즈 역, <科學者의 功績>, (한국일보타임-라이프, 1984), pp.146-147에, 1746년 미셸 브르크;라이든 병(콘덴서)의 발명, 1752년 프랭클린;전하에는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는 것을 증명, 1800년 볼타;최초의 전퇴(축전기)의 개발, 1820년 외르스테드;전기는 자기를 뿜을 증명, 1825년 암페어;전기 역학의 수학적 기초 이론을 확립, 1827년 음;전류, 전압 전기저항의 상호작용을 검증, 1830년 헨리;전기의 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 1831년 패러데이;전자유도의 현상을 발견, ...

70) <전경> 교훈 제2장 55절: 도주께서 ...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 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

71) 이충용, <한반도에 氣가 모이고 있다>, (집문당, 1997), pp.101-132에, ... 2000년 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소위 전통 과학 기술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자연 현상(조물주의 지혜)을 찾아서 여기에 인간의 지혜를 결합하여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새로운 자연 현상을 찾는 데에는 우주의 근본인 氣(형태를 바꾸어 가며 순환하는 에너지) 속에서 찾아야 한다. 동양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분명치 않은 것을 모두 氣라고 해 왔다. 요사이의 기라는 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도 초능력, 초자연현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72)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7.12), pp.124-129에, 후천을 예견하는 현대 문명의 전기 자동차

오쓰카 다이이치로 지음, 김병호 옮김, <초전도란 무엇인가>, (電波科學社, 1993), pp.250-257에, '꿈의 초고속 저공해열차: 자기부상열차'

인존 시대이므로 그 문명 이기를 움직이는 주체적인 동력은 靈力 즉 道力에 있으며,<sup>73)</sup> 그 도력은 물질 문명과 합덕하여 후천의 무한한 창조, 생산, 변화를 가져다 주어 상서가 무르 녹는 선경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후천은 지기가 통일이 되고, 땅에 새로운 기운이 응하며, 천지가 합덕하니 한번 종자를 뿌리면 가꾸지 않아도 오만년 동안 손에 흙을 묻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꾸지 않아도 계속해서 추수 할 것이다.<sup>74)</sup> 신명이 농사를 대행하니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곡식을 추수하며<sup>75)</sup>, 신명이 水火를 임의로 하니 음식을 만듦에 있어 불을 때지 않고도 밥을 지을 것이며<sup>76)</sup>, 도인 집집마다 햇빛과 같은 밝기의 등대가 있어 밤·낮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연금술이 발전하여 氣에 의한 물질 변형이 임의로 되므로 누구나 풍족하게 금과 보석을 사용할 것이므로, 집안의 문고리나 옷걸이는 황금으로 만들어 질 것이고, 사람들은 금 당혜를 신는다.<sup>77)</sup> 또한 언어를 담당한 신명이 인간과 조화함으로써 배우지 않아도 언어 소통이 마음대로 될 것이고<sup>78)</sup>, 천지가 합덕하여 運

73)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7.1), pp84-95에, '초과학 연구의 현장'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1), pp40-61에, '초능력의 세계'

74) <전경> 교법 제3장 41절: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75)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7), pp.70-75에, 인간을 닮은 로봇,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로봇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기계이고, 안드로이드는 원형질로 이루어진 구성물로서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을 말하며, 사이보그는 기계와 원형질의 결합 혹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무엇이 로봇이고, 무엇이 사이보그인지, 심지어 인간은 무엇인지 조차 구분이 모호해지고 무의미해져 버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건 간에,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가야 할, 우리가 만들어 낸 동반자라는 사실이다.

76) 현대 물질 문명의 예: 전기 밥통, 전자 레인지 등

77) <전경> 공사 제1장 31절: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78) <전경> 예시 51절: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나니 ...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4), pp.134-147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모든 사용법을 기계에 맞춰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컴퓨터는 기계가 사람의 음성, 표정, 제스처를 읽어내 스스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즉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봉사하는 컴퓨터가 나온다.

앞으로 나오는 3세대 컴퓨터는 한 사람을 위해 여러대의 컴퓨터가 동원되며,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을 포함한 인간 감각을 컴퓨터가 이해해 인간과 인간, 인간



氣가 임의로 되니 縮天 縮地가 쉬워 마음대로 왕래하며 하늘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쉽다.<sup>79)</sup>

## 8) 相生 時代의 죽음

상생 시대도 시작이 있듯이 오만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끝이 있게 된다. 만약에 후천이 선천과 아무 연관성이 없이 펼쳐지는 선경세상이라면 무한히 연장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상생 시대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은 후천이 선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즉 인간이 주체로서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인존의 法力을 선천에서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상생의 힘인 조화력의 본질은 인존이 가지고 있는 영력에서 비롯되며, 그 영력은 공덕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공덕은 뭉쳐진 정혼의 크기로 나타난다.<sup>80)</sup> 따라서 후천에서도 상생 법력인 공덕을 쌓을 수만 있다면 상생 시대는 계속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천은 완전한 선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오만년동안 공덕을 쌓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이치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극락 세계의 백년 수도가 인간 세상의 하루 수도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의 수명은 선천 세상의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을 행함에서 비롯된 마음의 심력이다. 이 심력을 공덕이라하며, 이 공덕은 정혼을 뭉치게 하고, 이 정혼은 후천을 이끌어 가는 法력이 된다. 따라서 후천 상생 세상은 선천 세상에서 쌓아 놓은 공덕을 풀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 상생의 공덕만 존재하고 그 공덕을 조화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쇠병사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후천은 늙어서 죽는 일이 없으며<sup>81)</sup>, 죽을 때는 상생의 기운인 공덕이 다해 영육 일체

과 기계, 나아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킨다.

79) <전경> 예시 81절: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1), pp58-61에, 'PART III 참선에서 공중부양까지'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9), pp.48-65에, '영국인 존 설의 반중력 장치', '캐나다인 존 허치슨의 반중력 장치', '한국인 이상명의 공간이동 장치' 등

80) <전경> 교법 제2장 22절: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

적 존재인 정혼이 사라지므로 장사 지내는 일이 없이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sup>82)</sup>

## V. 끝머리

본 글에서는 해원에 관한 부분에 논리의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논자가 세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깊이를 더 할 뿐이다. 그렇지만 상생은 처음으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므로 앞으로 수정과 보완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기초적인 상생 이치를 밝혀 연구의 발판을 삼고자 하는 뜻이 더 크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하여 깊고 조밀한 논리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천을 예견하는 최첨단 과학 이기의 예는 앞에서 설명한 것 보다 훨씬 많다. 상제님께서 후천은 西神이 司命하여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룬다고 하셨듯이 지금 나오는 최첨단 문명은 후천 문명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많은 이들에게 바란다.

81) <전경> 예시 80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

82) <전경> 행록 제1장 37절: 상제께서 ... 「선천에서는 매배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순진리회 수도부, 『呪文』
- 
- 金成浩, 朴琪聖 共著, 『陰陽五行通辯寶鑑』 南山堂, 1993
- 盧台俊 譯解, 『新譯 周易』 흥신문화사, 1995
- 박영동, 『현대일반화학 제2판』 자유아카데미, 1995
- 오쓰카 다이이치로 지음, 김병호 옮김, 『초전도란 무엇인가』  
電波科學社, 1993
- 오진곤, 『과학사총설』 전파과학사, 1996
- 李圭泰, 『한국인의 의식 구조 2』 신원 문화사, 1993
- 李最漢 譯, 『古體電子工學』 塔出版社, 1982
- 이충웅, 『한반도에 氣가 모이고 있다』 집문당, 1997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헨리 마게나우, 데이비드 버가미니 원저, 라이프/인간과 과학 시리즈 역,  
『科學者の 功績』 한국일보타임-라이프 1984
- 
- 朴龍哲, 『解冤相生에서 解冤에 관한 研究』 1995  
『大眞論叢(인문·사회과학편) 제2집』 대진대학교 출판부
- 朴龍哲 『典經에 나타난 冤의 本質과 構造』 1996  
『大巡思想論叢 제1집』 대진대학교 출판부
- 
-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6.1, 1996.4, 1996.7, 1996.9
- 『과학동아』 東亞日報社, 1997.1, 1997.4, 1997.12
- 『주간조선』 조선일보사, 1998.1.29-2.5(등록번호 다 285호)